

한변 6.25 전시 납북피해자 가족 대리, 북한 상대 소송 승소

1. 한변은 6.25 전쟁 발발 70주년인 지난 2020. 6. 25. 전시 납북 피해자들의 가족을 대리하여 북한 당국과 김정은을 상대로 ‘북한의 반인도 범죄로 인한 인권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원고들에게 각각 최고 3,000만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한변은 이미 2020. 12. 2. 전시 납북피해자 가족 최병희 씨를 대리하여 같은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여 2021. 3. 25.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2. 6.25 전쟁 당시 북한 김일성은 건국 초의 지도층 인사 및 지역별 고급 인력들을 포함한 10만 명 내외의 민간인들을 납치해갔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 납북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납북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해왔다. 이번 소송에는 4대 국경일 노래 작사자인 역사학자 위당 정인보,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를 말소하고 보도한 동아일보 기자 이길용, 대한민국 등록 1호 변호사 홍재기, 서울지방법원 판사 김운찬 등 10명의 전시 납북 피해자들의 가족이 원고로 참가하였다.
3. 한변은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환영하며,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표로 있는 남북경제협력재단(약칭 경문협)이 보관 중인 북한 조선중앙TV 저작료에 대한 추심절차 등 판결문의 집행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2022. 5. 22.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

회장 이재원